

Glycol Ether 채산성 "악화"

한농화성 EGE 11만5000톤 공장 가동에 UCC등 물량공세

EO유도품 가운데 환경문제에 민감한 품목으로 알려진 GE(Glycol Ether)시장이 수요정체 및 공급과잉으로 시장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UCC 및 Shell 등 다국적기업들의 공급물량 증가는 물론 브라질 등으로부터의 수입제품도 대량 유입됨에 따라, 국내 유일의 GE 생산기업인 한농화성이 영업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GE 국내수요는 3만5000톤으로 94년 3만4000톤에 비해 2.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1994	1995	
		수 량	증감률
생 산	7,000	12,000	71.4
수 입	27,000	23,000	▽14.8
공급계	34,000	35,000	2.9
내 수	34,000	35,000	2.9
수 출	-	-	-
수요계	34,000	35,000	2.9

이는 91년 1만7500톤, 92년 1만8500톤, 93년 2만2000톤 수요에서 94년에는 3만4000톤으로 급성장했으나 95년에는 에틸계(EE) 및 메틸계(EM) 수요가 정체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95년 국내 GE 공급현황을 보면, 한농화성이 1만2000톤을 생산, 94년 7000톤에 비해 7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농화성은 부틸계 7000톤 생산을 비롯 EM계 3000톤, BDG계 2000톤을 각각 생산했다.

이처럼 한농화성의 생산이 급격히 증가한것은 선진국의 주전락품목인 PO쪽 Glycol Eter가 포함된 EGE(생산능력 1만5000톤) 공장을 95년4월 가동했기 때문으로 실제 2만

2000톤 생산능력을 기준할 때 가동률은54.5%에 불과했다.

한농화성은 EGE공장 가동에 따라 시장점유율 제고에 나섰으며, 이에 대응해 다국적기업들도 수입을 대폭 늘렸는데 UCC는 95년 부틸계 3000톤, 메틸계 1000톤, 에틸계 1000톤, 아세테이트 5000톤 등 1만톤을 공급해 수입시장을 주도했고 Shell도 부틸계 2000톤을 수입했다.

이밖에 삼성물산, 국제상사 등도 브라질에서 3000톤, 유럽에서 2000톤을 들여오는 등 수입에 적극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농화성의 생산능력 확대,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GE 수요는 증가율이 둔화돼 한농화성과 다국적기업들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한농화성은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기업들도 저가정책을 시도하는 등시장주도권 싸움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GE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95년초 kg당 700원에서 10월 1100원까지 치솟았으나 11월부터 770원으로 하락하기 시작, 96년3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원료인 EO가격에 압박받아온 한농화성은 채산성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농화성은 GE 원료인 EO를 삼성종합화학으로 부터 매월 600톤, 현대석유화학으로부터 200톤씩 공급받고 있다.